

意識構造의 詩的表現

李 庸 勳

The Poetical Expression of Conscious Structure

By

Lee Yong-Hoon

1. 序 言	(A) 鄉歌 (B) 麗謠 (C) 現代詩
2. 意識構造의 兩側面	4. 結 語
3. 詩表現의 實際와 脈絡	

Abstract

Literature continuously reflects on the conscious structure of a race or a nation, for it is not only a record of specific world of an individual but also of social and group consciousness.

It is the aim of this essay that emphasizes upon the point of inspecting and analysing what is the core of conscious structure related to Korean people, how it reflects on literary works and where the most general and important "spirit" flowing through Korean poems came from.

The core of conscious structure related to Korean people can be classified into two aspects; one is the consciousness directed to this world and the other the consciousness intended to future. These two aspects seem to be very contrary but they are main streams flowing through the conscious history of Korean people from old times.

Therefore, when he reviews Korean poems as an approach by means of analysing its own work on assumption of two conscious aspects, the writer considers that the central tradition of Korean poems is united into one as two aspects of the consciousness directed to this world and the consciousness intended to future in itself.

In Hyang-ga, which is the literal form of Sylna Dynasty, we can see the exploration of poems intended to the eternity, lying under the base of actual consciousness. At last, the high spiritual dimension of Hyang-ga could be finally made in the unification and harmony of these two extremes; the consciousness directed to this world and the consciousness intended to future. In short, the desirable unity of two aspects of the conscious structure was expressed in Hyang-ga. Although the unity produced a bit of separated phenomena, it is

still, the writer sees, connected with the modern poems through the Koryo-Ga-Yo.

Korean poems could be lightened in the unity of two aspects of the conscious structure, and so the writer thinks this is a vein of valuable tradition which could not be neglected in our poems.

To improve Korean poems fairly, we should creatively try to achieve the harmony and unity of these two aspects of conscious structure and this may be one of subjects of Korean modern poems.

1. 序 言

文學作品은 본질적으로 그 作家가 속해 있는 民族이나 國民의 精神속에 깊이 살고 있는 것을 표현해주는 하나의 象徴이다. 이 경우, 作家는 그 상징을 낳게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心理學은 集團意識에 상관없이 文學을 한 個人의 特殊世界의 記錄이라고 취급해 왔지만 文學이 단순히 個人의 記錄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社會의 記錄인 동시에 集團意識의 記錄인 것이다. 그러므로, 한 種族 즉 한 民族의 意識構造를 文學은 꾸준히 반영시키고, 동시에 意識構造는 文學作品에 투영되는 것이다.

이렇게 文學은 人間의 意識構造와 긴밀한 관련 아래 놓여 있으며, 當代의 文學에는 當代의 時代 및 社會上의 精神이나 思想 思考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文學이 文化의 一部로서 社會의인 聯關을 가지고 環境 속에서만 발생한다>고 말할 때, 그 <환경>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르네 웰렉(René Wellek)에 의하면 그것은 言語上 및 文學上의 傳統이다¹⁾. 그러나, 言語上·文學上의 傳統에 앞서 보다 직접적인 환경은 그 集團의 意識構造일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는 集團無意識(Collective unconsciousness)이라고도 말할 수 있으리라. 융(Jung)이 말한 소위 集團無意識이란 遺傳하며, 그것은 하나의 太古型(archetype)이라는 것이며, 이 太古型은 個的인 것이 아니라 集團의인 것이고 個人의 경험을 超趣한 先驗的인 것이다²⁾. 반복되는 말이지만, 文學作品의 직접적인 환경은 意識構造이며, 그것의 文化的인 表現體로서의 문학 작품은 그러므로 意識構造의 여러 側面들을 투영시키는 것이다. 한 民族이나 國民의 意識構造는 歷史, 風土, 文化에 따라 변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독특한 계속적인 生命을 가지고, 그 進化의 道程에 있어 많은 변화의 樣相을 通遞하는 하나의 有機體이므로, 계속적인 方面 즉 변하지 않는 意識의 中核은 不變의 모습으로 綿綿히 이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입각하여, 나는 이 글에서 韓國人의 기본적인 精神의 偏向 즉 意識構造의 中核을 밝히고, 그것이 어떻게 韓國文學에 반영되고 있는가를 살피려는 것이다. 鄉歌에서 麗謠를

1) A. Warren & R. Wellek, The theory of literature, (白鐵, 金秉喆 共譯 p.138)

2) 尹泰林, 意識構造上으로 본 韓國人, p.48

거쳐 現代詩에 이르는 실체에 있어서, 우리의 意識構造의 文學的인 反映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피려는 이 작업은 한편 韓國文學의 傳統的인 脈絡을 抽出하는 일도 곁들이게 될 것이다.

2. 意識構造의 兩側面

韓國人의 意識構造의 中核은 現世中心의이며 未來志向의이다. 매우 相反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가지의 側面은 韓國人의 意識史를 一貫해 온 原流일 것이다. 前者는 현실과 人間中心의 思考方式으로서 항상 이땅에 福音이 내리기를 希求했던 現世利益의인 경향으로 展開해 왔으며, 後者는 불행하고도 고통스런 歷史의 어둠 속에서도 民族을 民族으로서 永續하게 하고 民族史와 民族意識의 展開을 可能하게 한 原動力으로서 작용해 왔다.

未來志向의 意識은 永遠의 靈魂이 나타낸 自己表現이다. 久遠에 參加하고 永遠에의 途上에 闖關하려는 意志 그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現世中心의 思考의 有限性을 항상 止揚 克服하게 했던 韓國人의 價値있는 精神偏向에 속한다. 이같은 未來志向의 意志는 <人間과 그리고 地上的인 것이 지닌 虛無와 同一性에 대한 認識을 더불어서 비롯되는 것>³⁾이므로, 現世中心과 未來志向은 相互 矛盾되는 개념이 아니라 根原的으로는 相互 合一하는 必然을 내포한다. 現世의이기 때문에 未來의이기, 未來의이기 때문에 現世의인 逆說의 意味를 그것은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同一한 것의 兩面인 것이다. 自存心이 劣等意識의 다른 側面에 불과하다는 心理學的인 論理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

韓國人의 意識構造는 물론 이 兩側面의 범주에만 局限되는 것은 아니다. 尹泰林 박사에 의하면, 階層意識, 被虐民衆意識, 事理分析보다는 人間關係 重視, 權威에의 屈從, 體面意識, 過去에의 執着, 人情主義의 思考方式 등 여러가지를 들고 있다⁴⁾. 그러나, 이러한 意識들은 그의 진술처럼 대개는 <不安과 萎縮의 歷史>에서, 또는 儒教라는 思想的 영향에서 형성된 것이지 그 자체 中核的인 意識構造는 아닌 것이다.

그러면, 이제 現世中心의 및 未來志向의인 意識構造의 근거를 알아보자.

먼저, 現世中心의 思考方式은 가령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古代巫俗信仰에 있어서의 現世의인 要素, 佛敎受容過程에 있어 나타난 現世利益의인 경향, 新羅의 彌勒下生信仰, 샤마니즘(Shamanism)과의 結合相인 風水圖讖思想, 그리고 三國遺事의 <金現感虎>條, <皇龍寺九層塔>條와 같은 記錄들에서 그 근거를 잡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佛敎가 이땅에 受容되는 과정에 있어, 韓國佛敎는 現實의 効用性의 具現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絶對有 絶對安樂의 境地에 合一되는 것을 理想으로 한 佛敎 원래의 思想 대신에 다만 現實生活의 幸福을 祈願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佛敎의 理論이 발

3) 金烈圭, 韓國民俗과 文學研究, p. 281

4) 註(2)와 같은 책

전하고 禪宗이 유행하였으면서도 國家나 個人的 現世에 있어서의 幸福을 추구하는 現世利益의 信仰은 변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信仰은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으니 곧 道說에서 비롯한 風水地理說이 그 一例이다⁵⁾.

風水圖識思想의 특성은 巫俗性이며, 또 現世利益의인 면에 있다. 샤아머니즘 역시 現實의이며 實利의인 면을 강조하는 사상이다. 佛敎가 麗末에는 巫覡과 결부되고, 다시 風水圖識과 쉽게 결탁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寺塔의 建立, 法會의 勤修, 藏經의 刻造 등도 모두 現世利益의 祈願인 요구와 護國의인 思想 밑에서 진행된 것이었다⁶⁾. 新羅風俗에 매년 仲春을 당하면 初八日로부터 十五日까지 都中 士女들이 다투어 興輪寺의 殿塔을 도는 福會를 행하였다 하는데⁷⁾ 이 역시 現世利益의 思考方式 밑에서 진행된 것이라 하겠다.

金東旭교수는 三國遺事의 <彌勒仙花>條(卷三) 및 <孝昭王代 竹旨郎>條(卷二)를 例로 들고 彌勒과 花郎과의 관련성을 重視하면서, 이는 花郎을 彌勒의 化生으로 다루어 下生經에 의한 信仰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말하고, 이어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彌勒菩薩로서 四弘誓願을 이룩하는 面에 있어서 菩薩道에 입각한 悲願 自體가 將來佛로서 偉大한 佛土建設에 있는 것이지만, 新羅人이 이를 直視하는 바로는 現實性을 너무나 많이 간직한 實際의인 것이었다. 그러므로 花郎으로 化하여, 衆生을 濟度한다는 것도 보다 實地的 効用에 立脚한 것이었으며, 그것은 隱遁의인 方外의 指向보다는 實際의인 國家의 指向이 앞섰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潑刺한 新興 國家인 新羅에서 佛敎가 지닌 社會의 性格이었으며, 이런 彌勒下生信仰도 穢土感에 立脚한 衆生濟度에 대한 誓願으로서가 아니라, 新羅 貴族階級의 現實의 理想 具現이 그 一面上을 차지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⁸⁾.

이같은 現世 및 人間中心 思想은, 近者에 와서 韓國의 獨創的인 思想의 하나로 評價되고 있는 東學思想에 있어서도 나타난다. 東學의 소위 <地上神仙>이라는 思想의 境地는 순수한 自己實現으로서 도달되는 無爲而化의 境地인즉, 이것은 즉 人事를 다할 뿐이요, 天命을 묻지 않는다는 思想이다. 오직 성실하게 自己實現으로서 人事를 다하고 地上에 神仙의 世界의 到來를 理念하였다는 것은 역시 現世中心의 思考 밑에서 전개된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現世中心의 意識의 모습은 神話, 傳說 및 民謠에도 나타나며, 韓國人이 생각하는 <하느님>의 개념에도 나타난다. <하느님> 즉 <天>은 西歐의 神과는 달리 順天이 요구되는 것으로 韓國人의 天에 대한 모습은 언제나 祈願的이며, 따라서 <하느님>에 대하여 倫理的 行爲의 보수로서 기대하는 것은 長壽, 富貴, 강령 등 극히 現世的인 것이다.

우리의 意識構造가 이같이 現世中心 즉 現世利益의이라는 것을 朴鍾鴻박사는 그의 <韓國哲學史>의 부분에서 <未來像의 現世的 集約>이라는 말로써 表現하고 있다. 朴 박사는 未來의

5) 李基白, 國史新論, p. 153

6) 註(2)와 같은 책, p. 297

7) 三國遺事 卷五, 金現感虎

8) 金東旭, 韓國歌謠의 研究, p. 52

成衰禍福을 象徴의으로 예언하는 讖說, 또는 地勢를 相하여 宅地 都邑 내지 墓所를 擇함으로써 앞날의 繁榮을 도모하려는 風水說이나, 또는 自稱 彌勒佛의 出現에 대한 眩惑을 들면서, 이는 <아무리 심각한 苦難에 부딪치더라도 唯一의 희망을 영원한 來世의 彼岸에 걸리고 하지 않고 此世의 이 現實世界에서 成就 實現되기를 갈구하여 마지않는 證左>라고 진술한 다음, <未來 像의 現世的 集約은 오히려 韓國思想을 일관하는 밑받침으로서의 生活信條였다고 나는 생각한다>고 매듭짓고 있다.

지금까지 現世中心의 傾向에 관하여 여러 論述들을 인용 개진해 보았거니와, 그것은 말하자면 <아무리 자기 몸은 죽더라도 來世에서 어떤 福樂을 얻기 보다는 다시 이 세상에서 그것을 얻겠다는 생각, 즉 現世的인 것을 영원히 持續시키려는 그런 것>⁹⁾임을 알게 된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다시 福을 누리겠다는 그런 생각의 側面에는 바로 未來志向의인 精神이 가까이 자리하고 있다. 未來志向은 久遠에 참여하려는 形而上學的인 精神意志를 말함인데, 이것은 한 가지로 永遠主義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意識構造의 傾向이 現實性의 것에도 있지만, 동시에 永遠性의 것에도 있다는 사실과 그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자.

新羅의 彌勒下生信仰에 관한 진술이 앞에서 행하여졌지만, 新羅精神에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더불어 彌勒上生信仰도 있었던 것이다. 이 彌勒上生思想은 말하자면 이 地上的인 것을 초월하고자 하는 極樂淨土에의 信仰인 것으로, 後日 未來佛인 彌勒과相逢하여 그 大慈에 攝化되도록 하는 일종 未來志向의 意識에서 나온 信仰인 것이다. 金東旭교수도 彌勒下生의 信仰과 더불어 彌勒上生의 信仰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學理的인 面에서는 元曉와 愷興의 經疏가 남아 있어 그 大綱을 엿볼 수 있는 동시에 造寺 造像에 있어서는 彌陀淨土信仰과 더불어 彌勒淨土信仰이 同質의으로 存在한다는 것은 注目할 만하다>고 말하고 있다¹⁰⁾. 佛敎를 受容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와같이 現實의 下生信仰만이 아니고 未來의 上生信仰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은 진정 우리들의 관심을 끄는 것에 해당한다.

新羅의 彌勒上生信仰은 말하자면 天上의인 것, 永遠의인 것에 대한 韓國人의 關聯을 추구하던 精神의 表現이라 보아 그리 大過 없을 것이다. 永遠의 途上에서리는 韓國人의 이같은 未來志向性은 다음과 같은 古記錄에서도 충분히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旁有永明寺 卽東明王九梯宮 內有麒麟窟 後人立石誌 窟南白銀灘 有岩出沒潮水 名曰朝天石 諺傳 東明乘麒麟 從窟地中 登朝天石 奏事天上 李承休所謂 往來天上 詣天政 朝天石上麒麟徑 卽謂此也¹¹⁾.

金烈圭 교수에 의하면, 上記 <東明乘麒麟 從窟地中 登朝天石>은 再生儀의 口傳의 表現이며 永遠과 天上의인 것에 關與하려는 人間의 悲願의 表現이다. 그 悲願의 實踐이 곧 入窟이고 登朝天石이라는 것이다¹²⁾. 이같이 金교수의 설명을 전제로 한다면, 上記 古記錄은 韓國人의 意識構

9) 김현, 韓國文學의 樣式化에 대한 考察(創作과 批評, 6號)

10) 金東旭, 韓國歌謠의 研究 p.491

11) 世宗實錄 地理志(金烈圭著; 『韓國民俗과 文學研究』p.285에서 再引用)

12) 金烈圭著 上記書, p.288

造의 未來志向性을 주장하는 나의 진술을 매우 타당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약간의 誤謬는 있으나, 가령 다음과 같은 徐廷柱氏의 발언도 우리에게는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는 진술로 여겨진다.

新羅精神이 우리 것보다 더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나하면, 그것은 알아 듣기 쉽게 요셋말로 하면 永遠主義입니다. 重要視하여 理致나 모랄이나 志向이나 感情을 가진 것이 아니라, 永遠을 立場으로 해서 가졌었던 말씀입니다¹³⁾.

또, 彗星歌에 대한 그의 다음과 같은 설명.

空間的인 無限과 時間的인 永遠 속에 있어 빛나고 變化 없기는 별들 같은 게 이 天地間에는 없는 것이는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별들과 한 行列에 서는 것 보담도 한층 더 높게 자리잡고 있다. 이렇게 新羅人의 叡智는 그들의 사람으로서의 位置를 永遠과 無限 속에 빛나는 것으로서 헤아려 가졌던 것이다¹⁴⁾.

이상에서 우리는 現世中心的인 것 외에 未來志向的인 側面도 있음을 알 수 있다.

刹那的인 순간에 永遠한 未來까지도 集約하려는 精神, 즉 現世의 순간에 永遠과 無限을 集約 深化하려는 정신은 現實과 未來, 地上과 天上, 刹那와 永遠과의 爲一融合의 경지에서 오직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境地에서 이루어진 思想的 表現을 우리는 역시 東學思想에서 엿볼 수 있다. 소위 <人乃天>, <天心即人心>, <地上神仙>思想 등이 그것이다.

水雲이 1861年(辛酉)에 쓴 <論學文>에 다음과 같은 句節이 있다. 「(神이 말하되)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다. 사람들이 어찌 알겠는가. 天地는 알아도 鬼神은 모를 것이다. 그 鬼神이라는 것도 나다」 물론, 여기서 내 마음이란 神의 마음이요, 네 마음이란 水雲의 마음이다. 그러므로, 神의 마음이 곧 水雲의 마음이라는 것이다. 水雲은 人間이므로 결국 神의 마음이 곧 人間의 마음이라는 것으로 된다¹⁵⁾. 神人一體의 原理, 個(人) 全(天)一體의 原理로 보이는 人乃天 또는 天心即人心이라는 思想은 궁극적으로는 <地上神仙>¹⁶⁾의 境地에 까지 도달하는 것을 最終의 理想으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神人 一體의 原理인 人乃天 思想은 現世中心 및 未來志向이라는 兩側面의 바람직한 統一 밑에서 전개된 思想的 宗教的 表現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리하여, 現世中心的 및 未來志向的인 것이 韓國人의 意識構造의 中核이라 결론 지어도 지나치는 않을 것이다. 이제 이것은 詩表現의 實際를 통해서 具體的으로 살펴질 것이다.

3. 詩表現의 實際와 脈絡

A. 鄉歌의 경우 나는 앞에서 韓國人의 意識構造가 現世中心的 및 未來志向的이라고 진술하고, 이 兩者는 同一한 것의 兩面 즉 表裏의 關係라고 말했는데, 이는 人類學的 表現을 빌리

13) 한국일보, 1959. 2. 25

14) 徐廷柱, 詩文學概說, 正音新書, p. 102

15) 崔東熙, 니이체와 崔水雲, (韓國思想講座·3, p. 169)

16) 水雲, 教訓歌, 1860年

면 相互兩半制(dualism)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相互兩半制의 具體的인 모습은 항상 爲一融合의 樣態로서 存續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乖離現狀을 빚어내어 不調和의 樣相을 나타내기도 한다. 우리의 意識史에 있어, 이 兩者는 실제로 統一되어 調和狀態를 빚기도 하였고, 또는 分離되어 어느 一面만이 부당히 강조되어 오기도 하였다. 말하자면, 그것은 意識의 辨證法的 過程으로서의 統一과 分離, 그러한 路程을 밟아 온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統三 新羅의 精神은 이 兩者의 結合과 融合에 의해 이루어진 精神이었고, 그것은 오늘날 25首밖에 전해오지 않지만 이른바 鄉歌라는 매우 높은 수준의 文學樣式을 만들어 냈다. 新羅人들은 분명히 現世와 未來, 有限과 無限, 地上과 天上을 往來하면서 이들의 兩極間을 爲一融合시켰음이 사실이다. 現實과 永遠은 峻烈히 對立되어 있지만, 現實은 永遠으로부터, 永遠은 現實로부터 각각 排斥되어 있지 않는 新羅精神의 차원은 그러므로 우리의 意識史 전반을 통해 意識構造의 兩極의 乖離를 극복한 빛나는 사례에 속한다.

오늘 이세 散花 불어
 색살본 고자 너는
 고돈 마수미 命入 브리옵디
 彌勒座主 피서라

(月明, 「兜率歌」¹⁷⁾)

本歌는 彌勒下生信仰의 노래다.

三國遺事에 의하면, 景德王 19년에 二日並現의 異變이 일어나자, 「請緣僧作散花功德則可禳」¹⁸⁾ 이라고 한 口官의 奏上에 따라, 王이 緣僧인 月明師로 하여금 노래를 지어 부르게 했고, 그 결과 해의 괴변이 사라졌다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 二日並現의 異變을 물리치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므로, 作品動機부터가 매우 實質性和 効用性에 의한 것이어서, 가령 治國理念을 노래한 安民歌처럼 現實性和 깊이 관련되어진 것이다. 本歌의 이같은 現世中心的인 面은 그 呪術性으로 보아 巫覡信仰과 깊게 맺어져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本歌가 現實性의 關聯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다. 직접 詩에서는 이 地上에 兜率天의 미륵님을 모시는 데에 꽃이 등장하며, 이 꽃은 노래의 表現처럼 <곧은 마음들의 심부름을 하는> 그러한 꽃이다. 한 떨기 꽃 속에 彌勒의 大慈悲를 바라는 마음은 곧은 마음 즉 殷重直心을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곧은 마음>은 저 願往生歌의 廣德이처럼 往生極樂을 위하여 밤마다 오직 端身正坐하여 한소리로 阿彌陀佛의 이름을 외우고, 혹은 十六觀을 지어 迷妄을 깨치고 眞理를 達觀하는 마음, 즉 明月이 窓에 비치면, 그 빛에 올라 正坐하였던 廣德의¹⁹⁾ 信仰心과 같은 마음인 것이다.

17) 梁柱東, 「古歌研究」에 의함

18) 三國遺事 卷五, 月明師 兜率歌

19) 三國遺事 卷五, 廣德 嚴莊

이렇게 끈은 마음으로써 二日並現을 풀기 위하여, 메시아로서의 彌勒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미 未來志向인 永遠에의 발돋움인 것이다. 그리고, 前揭한 것처럼 이 노래에서의 꽃은 佛敎의 眞覺으로서의 <꽃은 마음>의 使者이며, 또한 彌勒座主를 모시는 媒體인 것이다. 직접 詩에서는 人間과 佛의 媒介體, 地上的인 것을 天上의인 것에 건네주는 甞을 다하고 있다²⁰⁾. 人間과 佛의 媒介體로서의 이 <꽃>은 現實과 永遠에 共同關與하려는 精神의 표현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노래는 다만 現實性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永遠한 것에 대한 관련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永遠性에 대한 관련이 祭亡妹歌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타난다.

生死路는

에 이샤매 저히고
 나는 가늠다 말고도
 볼다 닐고 가늠고
 어느 마술 이룬 복르매
 이에 더에 떠될 님다이
 흥돈 가재 나고
 가는 곧 모든더
 아으 彌陀利에 맞보올 내
 道 닷가 기드리고다

(月明, 『祭亡妹歌』²¹⁾)

이 노래는 매우 抒情的이다. 表現技巧와 形式에 있어서도 매우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앞의 兜率歌가 彌勒信仰의 노래임에 반해, 이 노래는 彌陀信仰과 結付된 노래다. 新羅에 있어, 彌勒下生思想은 彌陀淨土思想과 共存해 왔음은 이미 말한 바와 같다. 彌陀淨土思想은 新羅人들에 의해서 生을 초월한 곳에서 얻어진다고 생각되어진 永遠의 개념이다.

永遠은 <열려진 時間>이며, <열려진 영혼>이다. 月明師는 永遠을 향하여, 자신의 時間과 靈魂을 열어놓고 있다. 그러한 表現이 <아으 彌陀利에 맞보올 내/道 닷가 기드리고다>다. 그는 죽음에 절망하지 않고, 장차 西方淨土에서 죽은 누이를 만날 때까지, 道를 닦으면서 기다리겠다고 한다. 有限을 초월하려는 意志와 認識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月明師는 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죽음의 意識속에 잠겨 말 한마디 못하고 무서워하는 누이를 통해서 間接的으로 죽음을 서술하고 있다. 月明의 마음은 단순히 죽음에 대한 悲哀와 絶望이 아니고, 現世의 生을 위해 가지는 認識의 기쁨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므로,

莫言兜率連天遠
 萬德花迎一曲歌²²⁾

20) 註(3)과 같은 책, p. 295

21) 註(17)과 같은책에 의함

22) 註(18)과 같은책

라고 한 것은 바로 그러한 認識의 기쁨에 대한 表現일 것이다. 그리하여, 이 노래가 던져주는 어떤 憂愁의 느낌 그것은 永遠의 靈魂이 주는 感動의 그것으로 바뀌고 있다.

永遠의 영혼은 <밀는 意識>을 말하며, <밀는 意識>에 있어서의 믿음이라는 價値는 存在 속에서 어떤 增加를 뜻하는 것이다²³⁾. 彌陀利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으면서 행하여지는 月明師의 修道는 그러므로 분명히 永遠한 價値秩序와 새로운 삶에 대한 意識의 확산이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永遠의 영혼으로 충만하여 매우 넓은 하나의 世界에 열려져 있다. 그 하나의 世界란, 宗教的으로는 極樂淨土의 세계, 意識構造上으로는 未來志向의 세계이다. 人間에 있어 가장 큰 悲劇인 죽음에 대해 絶望하지 않는 意識은 어떤 希望과 믿음, 그리고 永遠을 希求하는 未來志向의 精神에서 可能한 것이다. 그러므로 <彌陀利에 맞보올 내, 道 닷가 기드리고다>는 永遠한 彼岸의 世界에 대한 志向인 것이다.

그러나, 本歌는 오직 現實을 떠난 이데아의 世界에서 永遠性이 具現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現實성과 깊게 맺어진 자리에서 永遠性은 具現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彼岸의 世界를 지향하는 과정으로서의 修道가 바로 이 此岸의 世界에서 행하여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지만 그러나 修道의 現場이 此岸에 있다는 이 소박한 前提보다도, 다음과 같은 三國遺事의 註書에서 그 現實성과의 관련성은 뚜렷해지는 것이다.

明又嘗爲亡妹營齋，作鄉歌祭之，忽有驚颺颺吹紙錢，飛舉向西而沒²⁴⁾.

紙錢이 바람에 날리어 西쪽으로 사라졌다는 것은 결국 죽은 누이 동생으로 하여금 路費를 삼게 했다는 것인데, 西方淨土에 이르기 위한 現實的인 수단으로서, 紙錢 즉 路費가 필요했다는 것은 곧 現實的인 思考方式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어진다.

鄉歌가 現實性의 바탕위에서 永遠性을 具現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주목되는 사실인 것인데, 이와같이 現存 鄉歌의 대부분은 現世中心 및 未來志向과의 爲合一融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 가령, 擘星歌<길뽈 별 비라고>의 <별>은 徐廷柱氏가 매우 감탄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발 밑에 놓여 우리의 旅行을 위해 旅行 갈 길을 와서 쓸 것으로 되어 있는>²⁵⁾ 그러한 별이다. 二十八宿中の 心宿(心大星)를 범한 擘星을 없애고, 侵入해 오는 倭兵마저 물리쳤다는 實際的이고도 적극적인 現實性을 바탕으로 한 擘星歌에 있어, 風岳에 내리와 <길 쓰는 별> 그것은 확실히 <宇宙的 秩序 위에 서는 精神의 表現>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같이 鄉歌에서, <現世>와 <未來>가 普遍的 秩序로서 融合되고 있음을 보는 것이다.

이같은 경지는 眞理와 理想淨土을 추구하는 實踐的인 信念의 노래인 遇賊歌에서도 나타나며, 널리 알려진 鄉歌의 하나인 處容歌에도 나타난다. 處容은 본래 東海龍王의 아들이고, 神秘的인 超人的인 人物이지만, 현실적으로는 級干이라는 벼슬자리에서 王의 政事를 輔佐하고 結婚까지 한 現實的인 人物로 등장한다. 한 人物에서 實質과 神秘의 兩面이 調和·融合되어 있음을 우리

23) 金桐孝, 永遠에의 途上에선 形而上學 (『문화비평』 2호, p. 308)

24) 註(18)과 같은 책

25) 徐廷柱, 詩文學概說, p. 102

는 실제로 處容에게서 보는 것이다. 處容이 疫神에게 그처럼 너그러운 寬容의 地平을 일어 보일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그와같은 大融合의 精神的 차원에서 基因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兜率歌, 祭亡妹歌, 杼星歌, 處容歌 등에서 볼 수 있는 바, 兩側面의 融合相은 讚耆婆郎歌에서 가장 壓卷的으로 나타난다.

열치배
나토얀 드러
흰 구름 조조 떠가는 안디하
새파른 나리어히
耆郎이 즈시 이슈라
일로 나릿 지뵈히
郎이 디니다샤은
무스미 궁홀 좃누아저
아으 잣스가지 노파
서리 물누을 花判이여.

(忠談師, 「讚耆婆郎歌」²⁶⁾)

이 노래는 <其意甚高>²⁷⁾ 라는 三國遺事의 記錄으로 보아, 當代에 있어서도 매우 格調높은 詩歌로 손꼽힌 듯하다.

高貴하고 清新한 人格의 소유자인 한 人間(耆婆郎)을 통하여, 끝없는 理想의 갈구를 찬양한 것이 이 노래다. 忠談師에 의해 끝없이 追慕되고 있는 耆婆郎의 모습은 시냇물에 비친 달의 이미지로 形象化되고, 그의 人格은 서리를 모를 만치 높은 잣나무[栢]로 비유되고 있다. 구름 사이로 나타난 밝은 달이 地上의 시냇물[江]에 비치고, 그 물속에 비친 달의 이미지 속에 耆婆郎의 모습이 떠오른다. 물은 充滿하면서도 깊이 있는 久遠의 이미지를 가져다주는 것이기에 물속에 가득한 郎의 모습은 이미 그것으로 歌人의 郎에 대한 追慕의 깊이를 더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久遠을 主眼로 한 이 노래의 中心部는

나릿 지뵈히
郎이 디니다샤은
무스미 궁홀 좃누아저

에 있다. <마음의 끝>은 文面上 郎의 지닌 마음의 <끝(理想)>이다. 그러나, 그것은 人間의 志向하는바 價值秩序의 極點이며, 未來를 志向하는 人間意志의 발돋움 그것이다. 歌人은 그러한 <마음의 끝>을 좃고저 한다. 有爲와 變轉의 世界를 無爲와 久遠의 世界 그것으로 바꾸려는 新羅人의 탐색이 여기 있다. 이른바, <其意甚高>의 究極的인 뜻은 여기서 찾아야 할 줄 안다.

작자 忠談師의 것이기도 한 耆婆郎의 지닌 永遠에 대한 理想은 그러나 非現實的인 곳에서 일

26) 梁柱東, 「古歌研究」에 의함

27) 三國遺事 卷二, 景德王

(11)

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뫼 지뵈히 郎의 디니다샤온>이란 句節이 그것을 말해준다. <지뵈>(石原)은 本歌에서 <나리여>(江水)와 서로 對立되어 있다.

金烈圭 교수에 의하면 <지뵈>과 <나리여>는 각각 此岸的인 것과 彼岸的인 것, 人間的인 것과 天上的인 것의 對立이다²⁸⁾. 그러나, 이 對立은 二律背反的인 갈등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融合에 의한 統一과 調和로서의 그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江水는 그 물로 말미암아서 人類學的으로는 生命의 源泉 곧 久遠한 生命의 表象이며, 久遠의 表象으로서의 江水와 대조되어 있는 자갈밭 그것은 바로 不毛의 表象이다²⁹⁾. 不毛의 表象인 자갈밭은 地上과 現實을 意味하는 그것이다. 그러므로, <나뫼 지뵈히 郎의 디니다샤온 ㅁ스ㄹ ㄱ>은 郎의 久遠에의 志向이 <지뵈> 즉 現實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마음의 끝>으로 表現된 저 永遠에의 理想은 어떤 虛構的인 觀念이나 抽象의 그것이 아니라, 現實 속에서 彫鑿되고 具體化되는 그런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鄉歌에 있어 永遠에의 未來의 志向은 現實의인 삶의 터전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그것은 또한 높은 融合의 境地로 승화되고 있는 것이다.

B) 麗謠의 경우 現實意識을 基低에 깔면서 永遠을 志向하는 形而上學的인 探索을 우리는 鄉歌에서 보았거니와, 이같이 鄉歌의 높은 精神的 次元은 그것이 現世中心과 未來志向이란 兩極間의 統一과 調和에서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었음은 앞에서 보아온 바와 같다. 兩極間의 融合에 의해 이루어졌던 높은 수준의 鄉歌文學은, 그러나 불행하게도 後代의 文學에 계승되지 않는다. 麗朝의 詩歌 樣式인 麗謠에서 新羅의 차원 높은 鄉歌精神은 좌절된다. 이러한 점에서 麗謠는 일종 <挫折된 文學>이라고 말할 수 있다.

麗謠는 착잡하고 혼란했던 時代 속에서 이루어진 詩歌文學이며, 또한 意識構造의 兩側面이 乖離現象을 빚기 시작했던 時代의 노래이었다. 意識構造에 있어서의 未來志向性은 高度의 境地에서 具現되는 정신적 표현이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나 하나의 <可能的 素地>로서의 安定된 社會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高麗란 時代는 실상 未來志向性의 확대가 不可能했던 內憂外患의 暗黑한 時代였다. 오랜 戰爭이 지속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政治的 社會的 混亂이 극심했던 時代였다. 특히 정치적으로 李資謙, 妙淸, 鄭仲夫, 崔忠獻, 萬積 등의 亂, 그리고 몽고, 글안의 계속적인 침입으로 인한 오랜 江華遷都時代가 왔으며, 그로 말미암아 取民無度의 無秩序가 행하여지고, 基層 社會는 몹시 動搖되고, 支配層 內部的 분란과 갈등은 극도로 尖銳化되었으며, 또한 貴族들의 奢侈, 王의 遊幸, 거기 따라서 徵用되는 庶民들의 財物과 勞力은 격증하여, 百姓은 塗炭에 빠저 그야말로 混沌과 混亂을 거듭하는 극히 錯雜한 社會狀態를 야기시켰다.

不安한 高麗社會는 未來志向的인 意識을 질식시키고 대신 現世中心的인 意識을 膨大시키지 않

28) 金烈圭, 韓國民俗과 文學研究, p. 297

29) 같은 책, 같은 페이지

을 수 없었던 것이다. 現實이 비참하면 할수록 거기서 유지되는 生은 本能的이며 現實 爲主의 것이 될수밖에 없다. 이러한 狀況下에서는 文學도 本能 및 愛情至上의 손쉬운 퇴조思想에 물들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것이 바로 麗謠에 나타난 男女의 肉體的인 愛情의 表現인 것이다. <어름우희 댁님자리 보와 님과 나와 어러주글 만녕>(滿殿春)과 같은 享樂의 이고도 刹那的인 性的遊戯, 또는 直說的인 외설한 표현 등은 當時 퇴폐적인 것으로 보이는 貴族들의 享樂의 文化와 더불어 일반 민중의 愛情至上主義의 퇴조思想을 반영해 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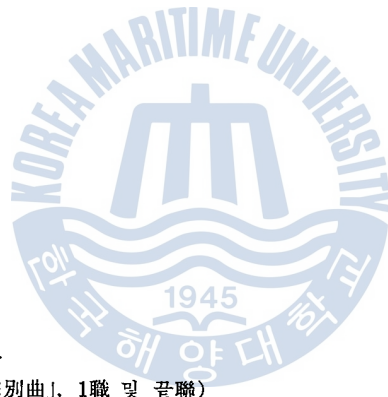
그러하여, 麗謠는 鄉歌와 같은 높은 文學的 水準을 보여주지 못한다. 따라서, 麗謠에는 形而上學的인 探索과 認識의 노력이 不在하고 있다. 永遠에 참가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未來志向的인 意識이 轉落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社會的 現實의 고인으로 말미암아 意識構造의 乖離, 未來志向性的인 轉落현상에서도 現世中心的 및 未來志向的인 意識의 바탕은 여전히 麗謠를 통해 一貫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살어리 살어리 랫다
靑山에 살어리 랫다
덜위랑 두래랑 먹고
靑山에 살어리 랫다
.....

가다니 비브른 도끼
설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곳 누르기 띠와
잡스와니 내엇디 흐리잇고

(「靑山別曲」, 1聯 및 끝聯)



靑山別曲은 西京別曲과 더불어 麗謠中에서도 우수한 작품으로 손꼽힌다. 그것은 주로 詩의 悠然한 情調에 대한 評價의 결과에서일 것이다. 그러나, 靑山別曲은 그보다도 좀더 적극적인 면에서 고려되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노래는 民衆들에 의해 불리워진 民衆의 노래로서, 그들의 生에 대한 苦惱를 노래한 것이다. 그래서 이 노래를 現實逃避나 諦念的인 哀調의 노래로 돌리려는 종래의 沒認識的인 태도에 대해 단호히 썩기를 박아야 한다. 靑山別曲은 일반 民衆들의 社會意識과 現實感覺이 극명하게 나타나 있는 작품이다. 현실에 대한 反抗과 抵抗의 기미마저 보이고 있다. <어디라 더디던 돌코/누리라 마쳐던 돌코/미리도 괴리도 업시/마자서 우니노라>(本歌, 5聯)와 같은 표현은 下層階級의 上層階級에 대한 抵抗이며, 일반 庶民들의 현실에 대한 告發과 울분의 表現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靑山別曲은 高麗一代의 多難 錯雜한 시대에 살던 민중들이 그들의 짓눌린 階級意識과 生活의 閉鎖狀態로부터 活路를 찾아보려는 意慾을 보이고 있는 작품이라 하겠다. <살어리 살어리 랫다. 靑山에 살어리 랫다>는 그러니까 단순히 現實逃避的인 표현이 아니라, 비참한 시대의 현실 속에서도 生의 活路를 열어보려는 深索이며, 새로운 삶에 대한 追求인 것이

다.

이 노래에서 <青山>과 <바다>는 久遠의 세계에 대한 하나의 象徵語다. 久遠한 삶을 누리려는 그들의 意志가 괴로운 現實狀況과 對比된 <青山>에의 志向으로 나타난 것이다. 불행하고도 비참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찾는 青山과 바다는 하나의 逃避處가 아니요, 보다 값진 삶을 위해서 찾는 새로운 秩序의 세계인 것이다. 青山에의 志向으로 現實的 生의 悲哀를 초월하려는 希願은 바로 未來志向의 意識의 發現이 아닐 수 없다. 青山別曲의 이같은 未來志向의 悲願은 <올어라 올어라 새여……>와 같이 유독 처절한 울음의 情調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새의 울음에 곁들여서까지 슬퍼하지 않으면 안되는 비참한 現實에 대한 反映이며 表現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것은 支配階級에 대한 被支配階級の 抵抗의 逆說的인 表現이기도 한 것이다. 本歌가 부당히 평가 받고 있는 바, 소위 哀傷, 諦念, 逃避는 바로 이러한 징후에 대한 하나의 誤解에 불과한 것이다.

다음으로 現世中心的 경향은 本歌의 前揭 끝연에 극명하게 드러나 있다. 즉,

가다니 빙브른 도끼
 설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곳 누로끼 미와
 잡스와니 내 잇디 흐리잇고

와 같이 <설진 강술>(強酒)을 마시며 다시 俗世에 살아 보려는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즉, <강술>이라는 現世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現世로 되돌아 오려는 意識을 드러내고 있다.

<강술>은 本歌에서 <青山>과 대립되어 있다. 이것은 此岸的인 것과 彼岸的인 것의 대립이다. 이 對立은 그러나 鄉歌에서처럼 統一과 調和를 이루지 못하고, 서로 對立的인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彼岸的인 青山에로의 志向에 있어, 강술을 마시며 다시 俗世에 살고자 하는 二律背反이 表面化되고 있는 것이다. 未來志向과 現世中心과의 사이에 乖離現象과 二律背反的인 갈등이 青山別曲에는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永遠性和 現實性 사이엔 어떤 성질의 境界도 틈도 있어서는 안된다. 兩極間의 이음배반적인 괴리현상이 이 노래의 중대한 결함으로 지적된다. 이같은 괴리와 갈등은 그러나 麗謠 전반에 걸친 것은 아니다.

[A]

德으란 곰비에 받좁고
 福으란 림비에 받좁고
 德이어 福이어 초닐
 나으라 오소이다……………①
 ……………

七人月 보로데
 아으 百種 排호야 두고
 니물 흘터 녀가지
 願을 비읍노이다……………②

(「動動」序詞와 七月詞, 후렴생략. 번호는 筆者註)

[B]

딩아 돌하 當今에 계상이다
 先王聖代에 노니와지이다.....①
 삭삭기 세물에 별헤
 구은 밤 닷되를 심고이다
 그 바미 우미도다 삭나거시아
 有德인 님들 여히와지이다.....②

(「鄕石歌」一, 二職)

<님>과의 영원한 偕老를 祈願하고 있는 점에서 두 작품의 詩想은 일치하고 있다. [A]의 ②와 [B]의 ②는 다같이 久遠한 사랑에 대한 祈願인 것이다. 久遠한 사랑을 기약하며, <님>과 함께 살고저 하는 哀願은 麗謠에 惝 差 있는 이미지다. <가시리>와 같은 別離의 情恨에 있어서도 離別에 앞서 님과의 만남에 대한 信念은 어떠한 형태로든 前提되어 있는 것이다.

麗謠의 <님>은 다만 男女의 愛情이나 또는 한 사람의 戀人이라는 좁은 범주에서 보다 더 넓은 意味의 <님>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麗謠가 民衆全體의 노래인 <謠>의 概念으로 인정되는 한, 麗謠에 惝 差 <님>의 이미지는 단순히 戀人과 戀人끼리의 <님>일 수는 없다. 麗謠의 <님>은 個人的인 님이 아닌 民衆全體의 <님>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다음과 같은 지적은 적절하다.

「가시리」는 고려의 「謠」이므로 「가시리」의 「나」와 「가실이」는 抒情詩에 있을 수 있는 한 사람의 「나」와 「가실 이」가 아니다. 「가시리」의 「나」는 하나의 「나」가 아니라, 전체의 즉 민중의 「나」이며 「가실이」는 한 사람에 대한 「가실 이」가 아니라 전체에 대한 「가실 이」인 것이다. 분명히 말해서 「가시리」는 「詩」가 아니라 「謠」(民謠, 필자註)이기 때문에 「가시리」의 서정성을 확대하여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³⁰⁾.

麗謠의 <님>은 民衆의 <님>으로서 高麗인들이 渴求하고 志向했던 바의 그 무엇일 것이다. 그것은 말하자면, 영원한 精神의인 支柱 내지 究極的인 價値秩序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麗謠의 <님>은 고려인들이 지향했던 永遠의 객관적인 表象이다. 永遠의 객관적인 表象이 鄉歌에서는 <달> <江水> <꽃> 등으로 나타났지만, 麗謠에는 <님>으로 나타난 것이다.

動動의 二月詞 <아으 노피 현 燈人불 다호라/萬人 비취실 즈이샷다>는 <님>에 대한 묘사인데, 여기서 우리는 動動의 <님>이 萬人을 비추는 燈불에 비유되어, 永遠의 이미지로 확산되고 있음을 본다. [A]의 ②, [B]의 ②에서 보듯 <님>과의 歸一을 祈求하는 마음 그것은 곧 永遠에의 追求이며, 未來志向의인 意識의 發現인 것이다. 한마디로, [A] ②, [B] ②는 <사랑>과 <님>으로 接近된 永遠에의 祈求의 表現인 것이다. 사랑은 영원한 삶을 意識하게 하는 유일한 自己根據이며, 이러한 사랑의 길에 의하여서만이 永遠한 存在는 오직 接近될수 있다. <님>과 한 곳에 가고저하는 希求는 永遠한 存在의 편에 서려는 意志를 말한다. 永遠한 存在란 절대적인 기쁨이다. 그러므로, <님>과의 이별은 나의 참담한 현실이요, 님과의 만남은 나

30) 尹在根, 歪曲된 表現世界의 定立(「亞韓」창간호 p.23)

의 永遠한 存在의 기쁨인 것이다.

麗謠에 일관하고 있는 詩的 精神은 그러니까 이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으려는 <만남>에의 信念이다.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이 아주 친밀하게 그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의 實在에 合一되는 領域>³¹⁾을 麗謠는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가시리>의 <설은님 보내옵노니 가시논듯 도셔 오소서>에서, 우리는 만남에의 信念 즉 이별을 뛰어넘어려는 意志의 領域을 볼 수 있다. 西京別曲 역시 <질삼희>조차 버리고라도 <님>을 좇으려는 祈求로 차 있다.

西京別曲의 一聯의 終句 <우리꿈 좃니노이다>는 그러므로 저 讚耆婆郎歌의 <마음의 끝을 좃누아져>와 같은 詩想, 또는 詩的 이미지로 이어지는 그것이다. 절대적인 기쁨인 永遠한 存在의 편에 서려는 意志가 거기 있는 까닭이다. 여기에 鄉歌에서 麗謠로 이어지는 未來的 志向의 脈絡이 엮보인다.

다음으로, [A]①과 [B]①을 보자. 이것은 現世中心의 意識의 극명한 표현이다. 먼저, [A]①의 경우, 德과 福을 後杯·前杯로 받고자 하고 또 현실적인 福樂을 祈求하는 극히 現世利益의인 사상을 이 序詞는 보여주고 있다.

[B]①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님과 더불어 노닐고자하는 希願은 현실적으로 오직 當今(現在)의 聖代에서다. 當今에 太平聖代가 오기를 바라고, 그 聖代에 님과 더불어 놀고 싶다는 것은 現世中心의 意識에서 나온 現實的인 祈求인 것이다.

그런데, [A] [B]에 있어, 現世中心과 未來志向은 靑山別曲에서와 같은 二律背反的인 대립 갈등이 배제되어 있다. 즉, [A]②의 未來志向은 [A]①과 같은 現實性을 바탕으로 하여 具現되고 있으며, 이것은 [B]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有德한 님과의 永遠한 사랑과 偕老에 대한 未來的 志向은 곧 現世的인 祈求와 그대로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麗謠 역시 어떤 抽象的인 이데아의 세계에서가 아니라, 이땅에 福樂과 太平聖代가 到來되기를 바라는 現世中心의인 現實性을 바탕으로 하여 <님>과의 永遠한 歸一을 祈求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永遠>과 <現實>의 同時的인 祈願과 그 辨證法的인 統一을 볼 수 있는 것이다.

[C] 現代詩의 경우 意識構造의 兩側面인 現世中心과 未來志向의 변증법적인 통일을 하나의 傳統의 脈絡으로서, 鄉歌, 麗謠에 나타나고 있음을 보았거니와, 이것은 곧 現代詩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이것을 萬海 韓龍雲을 중심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님은 갓읍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갓읍니다.

.....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은 쓸데 없는 눈물의 源泉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을 아는 까닭에, 견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希望의 정수박이에 들어 부었습니다.

31) 註(23) 참조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沈默을 휩싸고 돕니다.

(韓龍雲, 「님의 沈默」)

이 詩에서 우리는 麗謠의 <님>이 萬海의 <님>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본다. <「님」만 님이 아니라 기쁜 것은 다 님이다. 衆生이 釋迦의 님이라면 哲學은 칸트의 님이다>³²⁾라는 萬海 자신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萬海의 <님>은 素月的 <님>과 같은 一對一의 戀人을 말하는 個人的인 님은 아니다. 萬海의 <님>은 民族과 祖國 또는 民族正氣일 수 있을 만큼, 그 意味는 매우 보편적인 領域으로 확대되고 있는 <님>이다. 이것은 마치 麗謠의 <님>이 좁은 意味의 그것이 아니라, 民衆 전체의 그것으로 공변되고 있는 것과 같다.

영원한 精神的인 支柱, 즉 自己救濟의 絕對者의 存在 그것이 麗謠의 <님>이라고 한다면 萬海의 <님>은 영원한 精神領域에서 民族과 祖國을 내포하는 그것이다. 다만, 麗謠와는 달리 宗教와 民族의 차원으로 萬海의 <님>은 變容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님>과의 영원한 歸一을 신념하는 정신은 동일하다.

견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希望의 정수막이에 들어 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麗謠의 詩想과 일치되는 <만남>에의 信念이 여기 있다. 萬海의 詩에 나타나는 未來志向 역시 當面 現實을 극복하고, <님>과의 영원한 歸一을 신념하는 그런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麗謠와는 달리, 精神的 絕對世界에서 內的深化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끝 句節<아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 하였습니다/제 곡조를 못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沈默을 휩싸고 돕니다>에 드러나 있다. 이 句節은 精神的 內的 深化에서 우리는 어떤 영원한 메아리를 느끼게 한다. 萬海의 詩에서 이같은 메아리는 觀念的인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歷史의 地平으로까지 울려 퍼지고 있다. 萬海의 詩는 宋玉氏의 지적처럼, 社會意識과 歷史意識을 보여주고 있다³³⁾. 그 대표적인 작품의 하나가 뒤에 설명될 <당신을 보았습니다>와 같은 詩다. 이 때문에 萬海의 詩가 보여주는 바의 未來志向은 社會와 歷史로 한층 具體化된 面目을 보여주고 있다.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는 님과 이별한 슬픈 현실, 즉 民族과 祖國을 상실한 비참한 歷史를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한데, 이것은 萬海에게는 그야말로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지는> 그런 것이지만, 萬海는 未來志向의 精神的 具現으로써 그것을 훌륭하게 극복하고 있다. 이같은 未來志向의 精神的 具現은 <나룻배와 行人>에 잘 드러나고 있다.

32) 韓龍雲, 「님의 沈默」序文

33) 宋玉, 詩學評傳 p. 311

당신은 흙밭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 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열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불만 건너면 나를 돌아 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러.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일어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밝아 갑니다.

이 작품의 發想法는 前掲한 <님의 沈默>과 동일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작품에서 <당신>의 뜻 역시 民族과 祖國일 것이다.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알어요>는 그러므로 祖國光復에 대한 信念을 말해주는 것이며, 그러한 <당신>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의 未來的 志向인 것이다. <날마다 날마다 밝아 간다>라는 句節에서 우리는 萬海詩의 未來志向性이 매우 宗教的이며 스스로의 心魂을 불태우는 禱와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萬海詩에서 現世中心的 意識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자.

萬海의 詩에서 그것은 일종의 歷史的인 召命意識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社會와 歷史的 使命에 대한 自覺이다. 다음과 같은 句節이 그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당신은 흙밭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 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열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 갑니다.

<당신>이 <나>를 짓밟아도 <당신>을 안고 여울을 건너야 하는 그 나의 現實的인 使命이 여기 있다. <당신>에 의한 나의 現實的 苦惱와 苦痛이 여기 있으며, <당신>을 위해 獻身해야 하는 召命이 또한 여기 있는 것이다. 이는 民族과 祖國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랑에 의해 이루어지는 現實意識의 깊은 自覺이다. 이와같이, 萬海詩에 있어, 現實意識은 일종의 역사적 召命意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萬海詩의 現實意識은 가령 다음과 같은 작품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타난다.

나는 집도 없고 다른 까닭을 겸하여 民籍도 없습니다.

「民籍없는 者는 人權이 없다. 人權이 없는 너에게 무슨 貞操냐」하고 凌辱하려는 將軍이 있었습니다.

그를 抗拒한 뒤에 남에게 대한 激憤이 스스로의 슬픔으로 化하는 刹那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아아 온갖 倫理, 道德, 法律은 칼과 黃金을 재사지내는 연기인 줄을 일었습니다.

永遠의 사랑을 받을까 人間歷史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할까 술을 마실까 망서릴 때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韓龍雲, 「당신을 보았습니다」)

이 詩는 社會와 現實에 대한 激憤을 보여 주고 있다. <人間歷史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한다>는 것은 現實에 대해 민감한 反應을 보이는 表現인데, 이는 宋喆氏의 지적처럼 民族運動, 즉 당시에 萬海가 뼈저리게 느꼈던 社會參加를 말하는 것이다³⁴⁾.

34) 宋喆, 詩學評傳, p. 313

그런데, 이러한 민감한 現實意識은 未來志向的인 永遠性과의 融合에 의해 슬픔과 기쁨이 뒤얽힌 宗教的 民族的 사랑의 境地로 승화되고 있다. <슬픔으로 化하는 刹那에 당신을 보았읍니다> 또는 <술을 마실까 망서릴 때에 당신을 보았읍니다>와 같은 句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萬海의 詩는 現世中心과 未來志向을 爲一融合시키고 있어 意識構造의 兩側面의 어떠한 境界도 톰도 보여주지 않는다. 흔히, 명작으로 주목받는 그의 <알 수 없어요>의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쁨이 됩니다>하는 것은 再生을 의미하는, 未來志向的 精神의 表現이며,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는 現實意識과 歷史的 使命意識의 表現인데, 이들은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면서 大融合相을 이루고 있다.

永遠性은 그것이 現實性의 보완 없이는 하나의 헛된 虛構化에 지나지 않는다. 永遠의 虛構化는 韓國現代詩의 병폐의 하나로 느껴지는데, 이같은 병폐가 萬海詩에는 깨끗이 배제되어 있다. 가령, 다음과 같은 句節.

冥想的 배를 이 나라의 宮殿에 매었더니, 이나라 사람들은 나의 손을 잡고 같이 살자고 합니다……①

그러나 나는 님이 오시면 그의 가슴에 天國을 꾸미려고 돌아 왔읍니다……②

달빛의 물결은 흰 구슬을 머리에 이고 춤추는 어린 풀의 장단을 맞추어 우출거립니다……③

(韓龍雲, 「冥想」一部, 번호는 필자註)

여기서, <님이 오시면 그의 가슴에 天國을 꾸미려고 돌아왔다>는 것은 祖國光復의 날이 오면, 이땅에 理想郷을 건설하고자 하는 現世中心思想의 詩的 表現인데, 이같은 ②의 現實性에 의해 ①의 이데아의 世界가 詩的 리얼리티(Reality)를 획득하고 있다. 가령 ②가 배제되어 있다면 ①은 한갓 헛된 虛構나 꿈에 불과할 것이며, ③의 낭만적인 自然描寫 역시 生動力과 共感力을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①과 ②의 調和는 곧 <冥想>이라는 詩를 詩로서 성공시키고 있는 요인인 것이다.

이같이, 未來志向과 現世中心의 차원 높은 통일과 조화를 萬海의 詩들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大融合의 境地와 次元은 정히 鄉歌精神의 차원으로 이어지는 韓國詩의 傳統的 脈絡이라 하여도 좋을 것이다. 詩的 深化로써 麗謠를 지양 극복하고, 鄉歌를 발전시킨 稀有한 例를 現代詩에서 찾는다면, 우리는 그러한 例로서 萬海詩를 손꼽지 않을 수 없다.

물론, 新羅精神에 대한 천착으로 다소의 詩的 성과를 보여준 徐廷柱를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萬海詩에서 볼 수 있는 社會와 歷史가 그의 詩에는 不在하고 있다. 그의 이른바 永遠主義라는 것은 現實性이 배제된 未來志向的 意識의 극대화 현상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래서 그는 永遠性의 虛構化라는 詩的 결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意識構造의 兩側面의 어느 한 極大化 현상도 바람직한 것으로는 지목되지 않는다.

오늘날 한국 現代詩의 대부분은 現實意識의 極大化로 인하여, 매우 황폐하고 조잡한 양상을 빚어내고 있다. 지나치게 現實的文脈을 강조하거나 또 거기에만 일관하고 있는 예들이 그것이다.

새로운 統一과 調和의 노력이 진정한 詩的 探索의 작업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現代詩에 있어 眞面目의 출발점을 우리는 萬海詩에서 찾아야 할 줄 안다.

4. 結 語

文學은 한 個人의 특수한 세계의 기록일 뿐만 아니라, 社會와 集團意識의 기록이기 때문에, 한 種族 즉 한 民族의 意識構造를 그것은 꾸준히 반영시킨다. 이러한 반영은 레빈(Levin)의 견해처럼 뛰어난 詩人作家일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각도에서 한국인의 意識構造의 中核을 밝히고, 그것이 어떻게 文學作品에 투영되고 있는가를 歷史性에 밀착하면서 本稿는 살펴왔다. 本稿는 또한 鄉歌, 麗謠, 現代詩에 이르는 실재에 있어, 韓國詩를 貫流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이며 핵심적인 <精神>이 어떠한 意識構造의 所産인가를 아울러 밝히는 것이었다. 이 글에서 밝힌 마와 같은 두 가지의 意識側面을 前提로 하여, 작품 자체의 分析에 의한 접근으로 韓國詩를 살펴 본 결과, 韓國詩의 가장 中心的인 血脈이 본질적으로는 <現世中心>과 <未來志向>이라는 두 가지의 측면에 歸一되고 있음을 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가지 意識側面의 바람직한 融合을 보여주었던 樣式은 鄉歌였고, 그것이 약간의 乖離現象을 빚기는 했으나 여전히 麗謠를 거쳐 現代詩에 이어지고 있음을 본 것이다. 이같은 意識側面의 爲一融合의 경지에서 韓國詩는 빛날 수 있었으며, 그것을 나는 우리 詩의 버릴 수 없는 값진 傳統의 脈絡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韓國詩의 정당한 발전을 위하여 그러한 爲一融合에서 창조적인 노력이 하나의 詩的 探索의 작업 방향이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노력과 探索의 작업은 물론 詩人 各者가 刻苦한 성질의 것이며, 그것은 또한 傳統의 창조라는 韓國現代詩의 당면 과제와도 그대로 결부되는 것이다.

끝으로, 意識構造의 면에서 韓國 現代詩의 일반적인 병폐와 결함을 지적함으로써 이 結論 부분의 陳述內容을 보완 하고자 한다.

新詩 이후 韓國 現代詩가 混亂과 亂脈相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은 周知의 사실로 인정되고 있는데, 이것은 西歐의 것 에 대한 盲目的인 追從등 여러가지 이유들이 지적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前掲 두 가지 意識側面의 괴리와 그 대립 갈등에서 야기되는 惡循環의 현상이 아닌가 한다. 환언하면, 現世中心과 未來志向의 兩側面이 爲一融合하는 調和의 원리가 탐색되지 못

새로운 統一과 調和에의 노력이 진정한 詩的 探索의 작업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現代詩에 있어 眞面目의 출발점을 우리는 萬海詩에서 찾아야 할 줄 안다.

4. 結 語

文學은 한 個人의 특수한 세계의 기록일 뿐만 아니라, 社會와 集團意識의 기록이기 때문에, 한 種族 즉 한 民族의 意識構造를 그것은 꾸준히 반영시킨다. 이러한 반영은 레빈(Levin)의 견해처럼 뛰어난 詩人作家일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각도에서 한국인의 意識構造의 中核을 밝히고, 그것이 어떻게 文學作品에 투영되고 있는가를 歷史性에 밀착하면서 本稿는 살펴왔다. 本稿는 또한 鄉歌, 麗謠, 現代詩에 이르는 실체에 있어, 韓國詩를 貫流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이며 핵심적인 <精神>이 어떠한 意識構造의 所産인가를 아울러 밝히는 것이었다. 이 글에서 밝힌 바와 같은 두 가지의 意識側面을 前提로 하여, 작품 자체의 分析에 의한 접근으로 韓國詩를 살펴 본 결과, 韓國詩의 가장 中心的인 血脈이 본질적으로는 <現世中心>과 <未來志向>이라는 두 가지의 측면에 歸一되고 있음을 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가지 意識側面의 바람직한 融合을 보여주었던 樣式은 鄉歌였고, 그것이 약간의 乖離現象을 빚기는 했으나 여전히 麗謠를 거쳐 現代詩에 이어지고 있음을 본 것이다. 이같은 意識 側面의 爲一融合의 경지에서 韓國詩는 빛날 수 있었으며, 그것을 나는 우리 詩의 버릴 수 없는 값진 傳統의 脈絡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韓國詩의 정당한 발전을 위하여 그러한 爲一融合에서 창조적인 노력이 하나의 詩的 探索의 작업 방향이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노력과 探索의 작업은 물론 詩人 各者가 刻苦한 성질의 것이며, 그것은 또한 傳統의 창조라는 韓國現代詩의 당면 과제와도 그대로 결부되는 것이다.

끝으로, 意識構造的인 면에서 韓國 現代詩의 일반적인 병폐와 결함을 지적함으로써 이 結論 부분의 陳述內容을 보완 하고자 한다.

新詩 이후 韓國 現代詩가 混亂과 亂脈相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은 周知의 사실로 인정되고 있는데, 이것은 西歐의인 것에 대한 盲目的인 追從등 여러가지 이유들이 지적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前掲 두 가지 意識 側面의 괴리와 그 대립 갈등에서 야기되는 惡循環의 현상이 아닌가 한다. 환언하면, 現世中心과 未來志向의 兩側面이 爲一融合하는 調和의 원리가 탐색되지 못한 데서 빚어진 결과인 것처럼 생각된다.

兩者의 괴리와 대립·갈등의 不協和音에서 빚어지는 文學이 어떤 樣相(樣式)의 文學이 되는가는 自明한 것에 속한다. 이는 이미 앞의 모든 陳述에서 暗示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가령, 李朝文學은 나로서는 未來志向이 배제된 現世中心의 極大化에서 이루어진 文學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極大化 現象에서 이루어진 時調, 歌辭는 얼마나 비전 없는 문학이 되고 말았는가.

우리는 現世中心과 未來志向의 兩極間이 相互 結合됨에서 높은 차원으로 提高될 수 있었던 新羅의 文學樣式인 鄉歌를 알고 있다. 調和 없는 極大化는 대립과 갈등으로 사태의 亂脈相만

초래할 뿐이다. 이것은 가령 人間은 肉體와 精神이라는 二分法의 그 어느 것으로도 정당하게 파악될 수 없다는 논리와 비교될 수 있는 것에 속한다. 意識構造의 이같은 二分法的인 대립은 폐쇄주의를 초래하고, 精神의 확대를 沮害한다. 두 가지 意識 側面의 괴리와 대립·갈등의 極大化는 가령 다음과 같은 文學的인 케이크프레즈로 대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즉, <參與詩>와 <純粹詩>의 대립이 그것이다. <參與>는 現世中心의 극대화를, <純粹>는 未來志向의 극대화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參與詩>는 社會參與 및 민감한 現實感覺에도 불구하고 文學의 卑俗化를, <純粹詩>는 永遠의 關與 및 純粹抒情에도 불구하고 文學의 虛構化를 각각 가져온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다음과 같은 지적은 매우 시사적이다.

당대의 현실에 지나치게 깊은 관심을 표명한다는 것은 두가지의 전제를 수락하지 않으면 위험한 결론에 도달하기 쉽다. 그 전제 중의 하나는 부조리하고 무질서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소박한 전제이며, 또 하나는 현실에 관여한다는 것은 영원한 가치 질서를 탐구하는 것이라는 전제이다. 이 두개의 전제는 포리관계를 이루고 있어서 그 어느 한편만을 강조하다가 그 어느 한 편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우려가 있다³⁵⁾.

그러므로, 現代韓國詩의 근본적인 과제는 이 二分法的인 대립을 止揚 克服하는 길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調和와 融合의 精神으로서 두가지 意識 側面의 乖離 및 極大化를 지양하고 <參與>와 <純粹>, <行動>과 <表現>, <순간>과 <영원>, <地上>과 <天上>을 爲一融合하는 새로운 價値秩序의 정신으로 승화시키는 데에 있을 것이다. 兩側面의 乖離와 極大化 현상은 오늘날 韓國詩의 발전을 매우 저지하고 있는 주요 要因으로 지목되지 않을 수 없다. 그 어느 한쪽만의 극대화도 똑 같은 의미에서 韓國詩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다. 現世中心은 저속한 實際만을, 未來志向은 공허한 抽象만을 가져 올 공산이 큰 까닭이다.

이러한 二分法의 思考에서 오는 現代詩의 錯亂狀態는 當代의 문학에 있어야 할 그 시대의 文學的 理念 및 時代의 指導精神과 價値秩序가 부재하고 있다는 징표일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意識構造의 未來志向性을 더욱 계발하고, 現實性의 터전 위에서 그것을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 올려야 할 것이다.

上記 陳述의 각도에서, 現代詩의 당면 課題의 하나가 두 가지 意識 側面의 大融合이라고 말한 나의 주장은 결코 지나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35) 「文學과 知性」통권 제4호, p.222